

로컬뉴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채광철 총경 취임

전북도 해양안전
을 이끌어갈 제4대
군산해양경비안전
서장에 채광철 총
경(사진)(前 해경본
부 장비관리과장)
이 5일 취임했다.
새로 취임한 채광
철 총경은 전남 함
평 출생으로 부인과 슬하에 2남을 두고
있고, 전남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항
해학과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
과를 수료했으며, 지난 1993년 간부후보
생 41기로 해양경찰청에 입문했다.



취임사에서 채 서장은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안전, 깨끗하고 잘 보전
된 바다환경, 치안과 해양주권이 바로
선 우리바다를 만들기 위해 500여 전 직
원 및 의경과 함께 최선을 다해나갈 것
이다"며 "새로운 항해를 위해 모두 각자
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임 장인식 서장은 이번 인사에
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
으로 자리를 옮겼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수청, 비안도 등표 설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최근 육도면 비안도 등축 해상 암초에
등표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비안도 등표는 총 사업
비 4억원을 들여 높이 14m 규모로 제작
됐다.

등표가 설치된 암초(간출암)는 간조시
에는 노출되고, 만조 시에는 수중에 수
몰돼 위치확인이 어려워 인근 조업선박
들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했다.

신규 설치된 등표는 야간에 적색등화
를 매 5초마다 1회 점멸하는 우현표지로
써 등화를 8해리(13km)에서까지 인지할
수 있는 항로표지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비안도 등표 설
치는 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인근을 통
항하는 선박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항로표지를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 항로표지 기능유지와 노후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롯데아울렛 군산점 신축 착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입점절차 모두 마무리

롯데아울렛 군산점이 대형쇼핑몰 영
업허가를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을 마치고 매장 신축공사에 본격 착
수했다.

롯데아울렛 군산점은 5일 입점부지
에서 터 고르기와 공사차량 및 장비
진출입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는 등
매장 신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축매장은 지하층, 지상7층(연면
적 9만3,152㎡)으로 1~3층은 판매시
설(3만1,886㎡), 4~5층은 영화관(4,418
㎡)과 주차장(5만1,948㎡) 규모이며,
2018년 초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
다. 앞서 롯데쇼핑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으로 영업을 위한 절차도 모두
마무리했다.

롯데쇼핑 측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
서가 지난달 23일 유통업상생발전협
의회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군
산시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
이 교부됐다.



이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현 부지에 조
성 중인 복합도시 '디오션시티'에 롯
데아울렛이 본격 착공되면서 개발사
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롯데아울렛 군산점과 인접한
상업용지 8594㎡가 분양 중에 있으며,
향후 2단계 유럽형 스트리트몰까지 조
성되면 '디오션시티'는 롯데아울렛과
더불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면서 지
역경제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편 롯데아울렛 군산점은 지난해 1

월28일 건축신의를 신청해 3월4일 전
북도 교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됐으며, 7월28일 전북도 건축경관
통합심의회에서 실제 휴게 공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의결됐다.

이어 9월27일 군산시 건축허가로 12
월1일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12
월15일 군산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서 기존 건축면적에서 상업면적을 줄
이고 도로 차선을 추가로 넓히는 차
로 확보안 심의 의결로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익산지역 대학 2017학년도 정시모집

군산대 경쟁률 2.7 대 1 · 호원대 10.62대 1 기록

지난 4일 마감한 군산대학교의 2017
학년도 정시모집 결과가 915명 모집
에 2469명 지원으로 2.7 대 1의 경쟁
률을 나타냈다.

정시모집 가군(실기위주) 4.3 대
1(모집 65명, 지원 282명), 다군(수능
위주) 2.6 대 1(모집 850명, 지원
2,187명)이고, 학과별로는 체육학과
10.3 대 1, 간호학과 5.9 대 1, 아동가
족학과 4.5 대 1 등이다.

정시 모집인원 915명은 2017학년도
총 모집인원 1,897명의 48.2%에 해당

한다.
정시 합격자는 2017년 2월 2일 군산
대학교 홈페이지(www.kunsan.ac.kr)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633
명 모집에 6723명이 지원해 10.62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원대의 이번 정시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실용음악학
부로 58명 정원에 3172명이 지원해
54.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물리치료학과는 3명 정원에 145

명 지원으로 48.33대 1의 경쟁률을
공연미디어학부는 40명 정원에 1755
명이 지원해 43.88대 1의 높은 경쟁
률을 보였다.

이밖에 응급구조학과가 8명 정원에
77명이 지원해 9.63대 1, 호텔관광·
항공학부는 9명 정원에 77명이 지원
해 8.5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특
성화 학부·과에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호원대 정시모집 실기고사는 6일부
터 실시하며, 정시모집 합격자는 오
는 24일 오후 2시 호원대 홈페이지
(www.howon.ac.kr)를 통해 발표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경쟁률 5.77대 1 지난해 대비 상승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4일
2017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평균 5.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
했다.

원광대는 가나다 군에서 총 879명
을 모집한 가운데 5,075명이 지원해
전년도(5,17대 1) 대비 소폭 상승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학과별 최고 경쟁률은 다군 일반전
형 수화정보통계학부가 6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12.50대 1을 기록했으
며,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가 5명
모집에 62명이 지원해 12.40대 1로 뒤
를 이었다. 또한, 2017학년도부터 개
편되는 창의공과대학은 다군 일반전
형에서 전기공학과 8.80, 기계공학과
9.60, 건축공학과 9.43, 도시공학부
9.60, 디지털콘텐츠공학과 5.25, 탄소
융합공학과가 5.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

학과가 10.14, 식품생명공학과가 9.29
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원광대는 1월 11일 가군 체육
교육과, 디자인학부, 귀금속보석공예
과 실기고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가
군 스포츠과학부, 25일은 다군 음악
과, 미술과 실기고사를 진행하며, 1월
19일 음악과, 미술과, 군사학과를 제
외한 학과의 최종 합격자 발표에 이
어 2월 2일에 나머지 학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익산=정왕원 기자



익산상공회의소 정유년 신년인사회

익산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정유
년 신년인사회가 지난 4일 오전
11시경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
서 개최됐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최병선 회
장을 비롯하여, 진흥 전라북도 정
무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
홍 익산시의회 의장, 이춘서 국회
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박종택 전
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 등 각 기관·단
체장, 지역상공인 및 지역사회 지
도급 인사 350여명이 참석하여
2017년 새해 새 각오를 다지는 장
이 됐다.

익산상공회의소 최병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은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낯설고 험난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모든 것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고 떠오르는 저 새해의
태양처럼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지
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
아가야 하겠다고, 우리 기업인들의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해 나
가자고 말했다.

익산상공회의소는 이와 같은 중
차대한 시기를 맞아 지역의 기업
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과 유
관기관간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
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지역내 유
일한 종합경제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
성에 앞장서 노력하면서 회원기업
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전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상
공회의소에 보다 많은 관심과 격
려를 부탁했다.

한편 신년인사회 사전행사로 진
행된 제20회 익산상공대상 시상식
에서는 상공인부문에 (주)하림 이
문용 대표이사과 신켄타코리아
(주)한선호 사장이, 유관기관부문
에 원광대학교 김도중 총장과 익
산경찰서 김성중 서장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직원 희망퇴직 진행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가
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희망
퇴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군산조선소 관계자 등에 따르
면 회사 측에서 정규직 500여명을 대
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희망퇴직 신청
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들은 40개월 치 월급과
자녀 학자금, 설 보너스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는 직원들
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울산
조선소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울산 조선소에서도 구조조정
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자리
가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는 계 한 직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직원이 희망퇴
직을 신청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조선업 경기 부진에
따라 작업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상
황에서 이미 배정된 LPG선박 2척마저
지난해 7월 울산본사로 이전, 올 3월
이후에는 일감이 없는 상태다.

지역 사회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
소 존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등 노
력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아직까
본사의 공식 발표 없이 부정적인 기
류만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산조선소는 지난 2008년 군
산에 통지를 뜬 이래 매출 1조2000억
원, 고용 6500여명으로 군산수출의
20%, 전북수출의 9%를 차지하고 있
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 중 하나다.

/군산=문정곤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어린이 행복돌출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